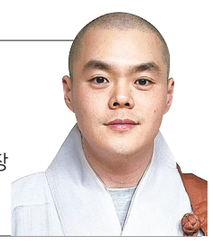
奉祝隨想

나날이 부처님오신날 되길…



눌은 스님
범어사 전 포교국장



그림·최주현

어릴 적 학습지만큼 싫었던 것이 사찰 가는 일
29살에 출가한 것도 어렸을 적 기억 작용해서
MZ세대가 사찰 오려면 '재밌는 불교' 거듭나야
시대 맞춰 '재미의 옷' 입고 어울림, 좋지 않은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수학 방문학습지를 구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숫자를 많이 싫어했던 이유로 매주 스무 장씩 숙제를 풀어놓으면 방문선생님이 오셔서 점검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던 그 학습지가 너무도 하기 싫었던 감정이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많이 밀리기 일쑤였고, 어느새부터인가 숙제를 하기 위한 노력보다 왜 숙제를 안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구상하는데 더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잔치에 가야한다는 둥 몸살이 났다는 둥 거짓말이 다 떨어지자 마지막에는 "다 풀어놓은 학습지가 어디로 갔는지 도통 모르겠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변명까지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넘어가시던 부모님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그 날은 정말 숙제를 안 했다는 사실을 실토할 때까지 저녁 식사를 거르면서 혼내셨고,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학습지를 열심히 잘 풀고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는 결말도 좋았겠지만, 학습지 구독을 끊는 것으로 부모님도 속이 편해지시고 저도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나쁘지 않은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에서 1등하는 네가 이 학습지 몇 장이 풀기 어려워서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하기 싫은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거짓말 늘어놓을 머리를 키우느니 공부 좀 덜해도 된다."

학습지 구독을 끊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이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숙제하기 싫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에 숙제를 하는 편이 훨씬 시간과 노력 면에서 현명했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계간 경제학 저널(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게재한 그의 논문 '이성적 선택에서의 행동 양식(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에서 고전 경제학에서 정의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정이 필요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감정의 호불호는 어떠한가, 판단을 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용되는가에 따라 사람은 '최적의 대안'이 아닌 '적당히 만족스러운' 해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사이먼의 이론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주변 환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보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협된 결정을 한다는 데 주안점을 주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마음의 호불호, 좋고 싫음이 아닐까 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널리 알려진 승찬 대사의 〈신심명〉은 위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지극한 깨달음의 시작과 끝이 오직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는 선사의 가르침은, 역으로 그만큼 우리 중생들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학습지만큼이나 어린 시절 하기 싫었던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부처님오신날 아버지를 따라 절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오신날만큼은 꼭 저를 데리고 인근의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귀한 휴일에 별 관심도 없던 절에 가서 절하고 채식으로만 나오는 비빔밥을 먹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또 절들은 다 산속에 있어서 땀나는 등산은 당연히 따라오는 옵션이었습니다. 불교가 나에게, 부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원하지 않는 어색한 곳에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에 싫은 감정만이 있었던 듯 합니다. 만 29살이 되어서야 출가인연이 이어진 데에는 비빔밥에 계란후라이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관계 맺는 방식이 크게 변한 세상, MZ세대니 알파세대니 하는 용어의 홍수 속에서 한국불교는 다시 오래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불자님들이 불교에 흥미를 느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절에 오게 할까.

지난 4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불교박람회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재밌는 불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불교박람회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디제잉하는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이었습니다. 진짜 스님은 아니지만 장삼을 입고 '카톡을 안 읽어서 고통, 친구가 잘 나가서 고통, 미래가 안 보여서 고통~'이라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뉴진 스님에게 많은 이들이 즐거워하고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교는 어렵고 따분하다는 통념을 벗어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덧 오늘은 부처님 생신날입니다. 아이들이 스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절에 와서 즐겁게 웃으며, 비빔밥이 비건이라고 몸에 좋다며 잘 먹는 모습에 좀처럼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재미가 불교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시대에 따라 즐거움과 재미의 옷을 입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젊은 불자님의 밝은 얼굴 안에서 수학 학습지를 여전히 싫어하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절에 가던 어린 날의 제 얼굴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나날이 부처님오신날이고, 매일 매일이 절에 오는 날이기를 발원하겠습니다. 곳곳이 사바세계에 임한 극락세계이고, 모든 순간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부처님오신날을 빌려 축원드립니다.

社說

MZ세대 참여 연등회 변화 환영한다

2천여 동국대 학생·150여 군종병 참여 '눈길'
동국대 全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의미 커
SNS 등 호평 일색… 안주 말고 '트렌드화'를

불기 2568년 연등회는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불교의 모습이 보였다. 항상 무겁고 엄숙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숙'하고 '재밌는' 불교를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노력들은 연등회 참여 세대의 변화로 이어졌다. 동국대에서는 2000여 명의 재학생이 연등회 제등행렬에 참여했으며, 군승과 군종병 150명이 행렬에 동참했다.

Z세대의 참여는 동국대와 군종교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동국대는 건학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아 '3000 대학생 청년 불자 양성'을 발원하고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생회 '동불'과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학원 불교장학생·소모임,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불교학생연합'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출범한 'WISE 대학생 전법단'을 출범시킨 동국대 WISE캠퍼스도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불교학생회, 불교도연합회(불교계 장학생, 불교추천전형, 유학생 불자) 등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 창립을 시작해 5월 11일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14개 모든 단과대학 내 불교동아리 창립을 완료했다. 이 같이 전법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3000 대학생 청년 불자'라는 서원의 결실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다.

5월 12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진 전통문화마당에서도 명상마당과 청년MZ마당을 신설하고, 연등놀이에서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의 EDM야단법석을 넣어 MZ세대와 소통에 나선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SNS에서 호평도 쏟아졌다. MZ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엑스(전 트위터)에는 '진짜 연등회 재미있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꽃비를 내려주신다는데, 비는 충분하고 꽃은 우리가 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 사진과 함께)최애와 연등회 데이트 왔어' 등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9일 열린 봉축기자간담회에서 단기출가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세대가 갖고 있는 불교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 유행이 된 뉴진 스님에 대해서도 "불교가 청년세대에 다가가려는 방편이 된다"고도 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예방한 뉴진 스님에게 헤드폰을 선물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MZ세대에게 불교는 '힙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대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MZ세대, 알파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이를 전법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가 가진 불교에 대한 호응과 관심을 불교 안으로 어떻게 끌여들여 조직화 교육화된 진성 신도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소위 '넥스트 스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불교에 대한 호응이 '트렌드화'되고, 불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불교의 노력에 달려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사)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총무부장 선행
교육원장 설산 능인(보광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교육부장 법천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포교부장 혜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